서남대 폐교 후속대책 발표

이환주 남원시장,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우선·유치에 총력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대 폐교 이후 후속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대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시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시민과 함께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후속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 기회이듯, 지난 2016년 3월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대 설립을 고민해 왔으며, 2016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근래에 와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안)이, 서울시는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주지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성엽 교문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의 타당성을 논의한 이후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어제도 정세균 의장을 방문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남원시에 빠른시일내 설립하는 것을 확정, 발표하도록 건의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대 폐교 이후 후속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대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얼마 전 전북도에서는 남원시와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있어 어렵다는 입장에서이다.

국립보건의료대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위치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경남·북, 전남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은 물론, 당초 내륙 서남권인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에 서남대 의대 설립 취지와도 부합되며, 기존 서남대 남원캠퍼스 이용으로 재원부담과 준비기간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대학 및 지자체간의 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갈등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유치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립의료원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드림 봄맞이 파티’ 오케스트라 공연

29일 순창군 향토회관서

순창군에서 봄바람 타고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진다.

군은 오는 29일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향토회관에서 ‘2018 드림 봄맞이 파티’라는 테마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순창군과 사단법인 드림필오케스트라 (지휘자 김재원)가 주관하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연은 오페라 돈키호테의 극중 주제가인 ‘임파서블 드림’, 나폴리 출신의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가 작곡한 곡으로 ‘오 솔레미오’ 등 서양의 유명한 가곡 뿐 아니라, ‘봄처녀’, ‘젊은 그대’, ‘목포의 눈물’, ‘진도 아리랑’ 등 순창군민들에게 친숙한 대중가요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남성 테너 ‘박진철’, ‘조창배’, ‘이우진’, ‘박정훈’ 4인 중창단의 공연 과 영화 ‘서편제’로 유명한 국악인 오정해의 출연으로 군민들에게 한층 풍성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3월 공연으로 시작으로 순창군에는 당연한 문화예술 공연이 연이어 펼쳐질 예정으로 군민 문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6월에는 퓨전국악단체인 나니레의 국악공연, 7월 경기도립국악단의 ‘국악뮤지컬-곰돌이의 여행’, 10월에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흥부네 황금똥과 함께하는 신나는 국악여행’의 어린이용 국악뮤지컬이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주요 핵심사업 현장행정

심민 임실군수가 2018년 군정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실시한 현장행정은 20일 임실읍을 시작으로 주 2회 43개 주요 핵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빙기 공사 재 착공에 따른 사업장 안전점검과 신규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사항 반영, 봄철 영농기에 따른 영농현장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을 둘 전망이다.

20일 첫 현장 방문에서는 임실읍의 주요 사업장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과 상성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두장선 농어촌 도록 확포장 등의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은 없는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심민 군수는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협력망 회의

임실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20일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일자리 유관기관 및 임실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실행하고 있는 관내 15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취업처 확보방안 및 관련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성취업상담사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창출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서해로프제강, 다슬기마을, 임실농부, 임실중앙요양병원, 원광수양원, 녹미원식품(영), 임실치즈마을, 정가네 8개 업체가 참여하여 여성일자리창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여성일자리창출 참여기업은 향후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여성친화 정책 행복도 ↑

아동돌봄센터 설치 사업 등

순창군이 추진하는 5개 분야 20개사업의 여성친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성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기존의 여성정책 5개분야 60개 사업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성과 분석을 해왔다. 그 중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도가 높은 20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 사업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까지 20개 사업에 총 59억여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 중 우선 눈길을 끄는 사업은 꿈나무 아동돌봄센터 설치 사업이다.

이사업은 (구)보건의료원 건물에 1억원을 투자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

구 보건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만3세~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맡길 수 있는 일시 돌봄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육아부담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당초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에서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2월부터 월요일만 휴관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여성친화공간을 활용한 문화강좌도 본격 개강 했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제1회 순창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실시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도울 예정이다.

또 건강관리사, 농가도우미를 파견해 여성이 출산 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 취약지역 범죄예방 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하고 경찰서 교육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

전문 취업설계사 들이 참여해 경력단절 여성 구인구직 취업연계 등 일자리 알선도 집중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광한루원 배경 영화·포스터 전시

남원시는 ‘스크린에 비친 광한루원’을 주제로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및 드라마 포스터 전시회를 4월 10일까지 광한루원 춘향관내에서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광한루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간 널리 알리지 못해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전시를 통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광한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회다.

이번에 전시될 포스터는 총 15점으로 1960년대 작품인 김수용 감독의 ‘춘향’ 포스터부터 2016년 영화의 ‘궁합’ 등의 총 7점의 영화 포스터와 2016년 화제의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과 2018년 신년특집으로 방영된 ”조선미인별전“등 유명 드라마 8점의 포스터를 전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소방서, 한국119소년단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안전을 중시하는 건강한 어린이 육성의 일환으로 남원 순창 관내 ‘한국119소년단’ 모집에 나섰다.

1963년 ‘어린이 소방대’로 창단 후, 올해로 55주년을 맞는 ‘한국119소년단’은 다양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관내에는 4개 대 총 56명의 소년단원이 각종 119안전체험 활동이나 캠페인,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소방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기존 등록된 조직 정비에 나선다. 단원 가입은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가능하며, 학교 단위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119소년단원에 가입하게 되면, 단원증이 주어지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컨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 ‘인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2018년 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이 초보 귀농인 연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은 예비 귀농인이 지역의 성공한 농가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성공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멘토링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영농기술이 부족한 예비 귀농인들이 5개월간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재배기술과 다양한 영농 지식은 물론 유통·판매까지 영농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단계별로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